

**문화포럼**

**김제시 배구협회 초대 회장에  
최정의 전 김제시의회 의원**

김제시 배구협회는 지난달 29일 김제 초등학교 강당에서 이근식 김제시장을 비롯 김종희 국회의원, 강병진, 정호영 도의원, 나병문 김제시의회 의원, 김복남, 김영자(비례), 박두기 시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최라도 전 국회의원, 배구동호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시 배구협회 초대회장 취임식 및 협회장배 납,여름배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 앞서 벌어진 협회장배 납,여름배구대회에는 남자 5팀, 여자 5팀 등 총 10개팀이 참가. 자웅을 겨뤄 남자우승은 어울림클럽, 여자우승은 만경초등학교가 각각 차지했다.

최정의 김제시 배구협회 초대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김제시 배구협회장으로 재임 하는 동안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조화를 이뤄 (김제시 배구협회가)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앞으로 김제시 배구협회가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도록 배구동호인들과 항상 소통하며 배우는 자세로 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근식 시장은 축사를 통해 "김제시 배구협회 초대 회장으로 취임한 최정의 회장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앞으로 김제시 배구협회가 최정의 회장을 중심으로 똘똘뭉쳐 더욱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태기 기자



지난달 29일 거리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 제27회 정읍사문화제와 제22회 정읍시민의 날이 지난달 30일까지 정읍사공원 및 정읍시내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정읍사문화제 호응 속 '성황'**

시민의 날 행사도 함께... 문화장에 이맹규씨·공익장에 박영춘씨 등 시상

지난달 28일 거리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 제27회 정읍사문화제와 제22회 정읍시민의 날이 지난달 30일까지 정읍사공원 및 정읍시내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제22회 정읍시민의 날과 제27회 정읍사문화제 기념식에서는 문화장 이맹규씨, 공익장 박영춘씨, 새마을운동장 이승애씨, 효열장 배상민씨를 정읍시민의 장에 시상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생기 시장과 유진섭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유성업 국회의원, 대일개발 김호석 회장, 해동관광호텔 김찬호 회장, 자매결연 지자체 관계자들을 비롯한 축하 사절단과 시의원 및 내외 귀빈, 시민과 관광객이 대거 참석했다.

아름다운 사랑을 주제로 선보인

정읍사공원 일원에서 열린 올해 행사는 모두 4개 분야 16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고, 시민과 관광객 등 1만여명이 다녀갔다.

모두 32개팀의 특색있는 주제로 펼쳐진 거리퍼레이드는 시민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박상철, 장혜진, 컨비즈, 전국구 등이 출연한 축하공연 또한 시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정읍사공원 일대에 조성된 색색의 하트타널과 아기자기한 LED조형물 하트장미 포토존의 경관조명과 점등된 소원등은 아름다운 밤하늘 아래 장관을 연출했다. 180여명 중 예선전을 통과한 10명의 본선 참가자들의 노래경연과 조항호, 신유, 서지오, 블루미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펼쳐진 '정읍사가요제'

또한 정읍사문화제의 열기를 실감케 했다.

작곡가 이호섭씨가 진행한 정읍사 인문학 강의 및 콘서트에서는 백제가요 "정읍사"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여 작곡가 이호섭씨가 작곡한 "정읍사" 노래를 인기 가수 문화육씨가 처음으로 발표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으며, 박상민, 오정혜, 윌연스님의 공연도 이어졌다.

김생기 시장은 행사에서 환영사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사랑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며, 축제를 계기로 내장산과 동학농민혁명의 유적지 등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정읍을 즐기며 아름다운 가을 추억을 만들어 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태환 기자



**정읍 자생차 페스티벌 개최 성료**

제5회 정읍 자생차 페스티벌이 2016 가을축제와 어우러져 지난달 29일부터 30일 까지 정읍시 내장산문화관광길 농경문화체험교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축제에서는 정읍에서 생산된 녹차, 발효차를 비롯해 기능성차로 각광받고 있는 작두콩차, 구절초차, 환민들레차 등 다양한 종류의 차(茶)를 선보여 정읍 자생차를 홍보하고 시민들과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다양한 차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또한 녹차묵, 녹차꽃등 32종의 차(茶)음식 전시 및 도자기(다기) 전시로 호기심을 자극하였으며 차문화단체의 다례시연, 차, 대금산초 등 특별공연이 차의 향과 어우러져 오감을 만족시켰다는 평가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가 함께 어우러져 서로 신뢰를 쌓음은 물론 차산업이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태환 기자

**부안오복드림 조포마을 벗짚 축제**

부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2016 오복 드림 조포마을 벗짚 축제'가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2일 간 계획된 양산리 예곡전당에서 펼쳐진다.

조포마을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규태)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부안군 계획면 조포마을의 주 생산품인 쌀의 부산물인 벗짚을 활용해 개최되는 축제로 주민복지 실현과 공동체성 회복을 목표로 개최된다.

축제는 첫날인 5일 오전 11시 개최식을 시작으로 자연산 잡이 잡이, 벗짚 먹거리 체험, 새끼 꼬아(옹골) 놀이기대회, 벗짚 대형조형물(새, 소) 관람, 벗짚공예 체험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안군 조용환 농업경영과장은 "쌀의 부산물인 벗짚을 활용해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쌀값 하락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잠시나마 고통을 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월드비전 매직 페스티벌' 성황리 종료**

**정읍사회복지관 주최**

정읍시민과 함께하는 '월드비전 매직 페스티벌'이 지난달 29일 정읍사회복지관(박진하 관장) 주최로 정읍시예술회관에서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20년 넘게 정읍사회복지관을 운영해온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공연으로 샌드아트와 수준 높은 매직쇼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김생기 시장은 축사를 통해 "정읍시의 사회복지 파트너로 든든한 역할을 해준 월드비전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정읍복지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며 축하했다.

한편 사회복지관에서는 아동과 어르신, 장애인 등을 망라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푸드뱅크 나눔 문화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 형성에 도약시키고 있다. /정읍=김태환 기자

**부안군, 11월 이달의 수산물로 갈치·키조개 선정**

부안군은 11월 이달의 수산물로 불포화지방산이 다량 함유돼 있어 아이들의 두뇌발달 등에 좋은 갈치와 타우린이 풍부해 간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갈치와 키조개를 선정·발표했다.

갈치는 따뜻한 성질이 있으며 비타민A가 풍부해 눈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EPA와 DHA가 풍부해 두뇌발달과 항산화효과가 있다.

또 인과 칼슘 등 미네랄이 풍부해 모유 수유하는 산모에게 도움이 되고 영양의 균형을 잡아줘 신체의 기능을 높여준다.

키조개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고 우수한 저칼로리 식품으로 간장해독에 탁월하며 키조개의 핵심 부위로 불리는 패주(貝柱)는 가열하면 영양이 파괴돼 감칠맛을 느낄 수 없는 등 고유의 맛을 잃게 되므로 날 것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11월 이달의 수산물은 부안 상설시장, 곰소수산물판매센터, 격포항수산물센터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고 신선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한편 부안군은 지역특산물 및 제철 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통한 어민들의 소득 향상 등을 위해 2018년부터 매월 이달의 수산물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보건소 그룹홈 웃음치료**

김제시 보건소(소장 박래민)는 이달 30일까지 20개소 그룹-홈(경로당) 입소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함께 해오 행복한 웃음 여행! 이라는 슬로건으로 웃음치료를 실시한다.

최근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구성이 핵가족화되고 전통적으로 노인부양을 맡고 있던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노인들이 점차 소외당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약 87%가 각종 만성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등 신체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로 노인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룹-홈 지원팀에서는 그룹-홈 입소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두뇌활동을 촉진함으로써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며 참여할 수 있는 웃음치료를 실시한다. 첫째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등 일주일 간의 웃음에 담긴 내용과 뇌 활성화 프로그램인 건강박수, 둘째 신체운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셋째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여 심뇌혈관 질환을 관리하고 있다. /김제=곽태기 기자

**김제시 양돈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김제시는 구제역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관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 108농가 17만5,000여두에 대하여 구제역 항체 형성률 제고를 위한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 접종은 급변 1월 구제역이 발생했던 대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구제역 발생이 우려되는 겨울철이 도래하기 전에 구제역 항체기를 높이기 위해 1차 접종을 완료한 돼지에 대하여 추가접종을 실시하는 것이다.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 접종은 시에서 공급하는 백신을 수령하여 농가자가 접종을 원칙으로 하며 접종 후 공병 회수를 통하여 백신 접종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읍면동 담당자, 농축협, 공수의를 통하여 백신접종 지도를 할 계획이다. /김제=곽태기 기자

또한 백신 접종 3주 후에는 체질 검사를 실시하고 항체형성률이 기준에 미달한 농가에 대하여는 확인검사 및 과태료 처분과 각종 시책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를 구제역특별방역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확산진행과 사무실에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휴일없이 상황유지 및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김제시 확산관계자는 "축산농가가 구제역 예방접종만 한다면 구제역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자기 농장은 자기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농장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 외부인의 출입 통제, 축산관계 차량 출입 통제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했다. /김제=곽태기 기자



김제지평선축제에 대해 운영부서·기관과 단체, 제천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분석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지평선축제 성과분석 토론회**

김제시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이승복 부시장 주재로 지난 9월 29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5일간 개최된 대한민국 대표축제!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에 대해 운영부서 및 기관과 단체, 제천위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분석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올해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는 예년과 달리 축제기간 내내 좋지 않은 기상여건을 보였으나 대한민국 대표축제다운 기풍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행사를 성황리 마무리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대표 프로그램의 대동성을 강화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참여를 더욱 강화하였고, 우리 농악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2주년을 기념하는 농악기획공연과 세계 최초 비행기 비행을 제작한 김제출신 정평구 선생 조영 프로그램, 아궁이 쌀받지기 체험, 벽골제 수상체험, 농경문화축제 컨셉에 맞는 대한민국 마کت로 페스티벌 등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를 받아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다. /김제=곽태기 기자



정읍시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정읍사공원 일원에서 개최한 '제11회 정읍 평생학습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정읍 평생학습 축제 성황속 막 내리**

47개 기관·단체의 30여개 프로그램으로 진행

정읍시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정읍사공원 일원에서 개최한 '제11회 정읍 평생학습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배움으로 하나되는 행복도시 정읍! 라는 주제 아래 단풍이 곱게 물들어 가을 정취가 묻어나는 정읍사공원에서 관내 평생학습 47개 기관·단체의 30여개의 프로그램이 진행했다.

이들동안 시민 천여 명이 방문해 동아리 무대발표회, 전시관람, 체험활동 등, 주민자치프로그램 견학대회 등 다양한 평생학습 행사내용을 즐기며 유익한 축제의 한마당을 만끽했다.

29일 개막식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평생교육 및 성인문화 시화전 시상식에 이어 평생학습동아리 무대발표회가 이어졌고 30일 둘째날에는 주민

자치프로그램견학대회가 댄스, 노래, 난타 등 10팀의 경연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이번 축제는 평생학습관과 성인문화교육 운영기관, 동 주민자치센터 등 평생학습 기관·단체·학교·동아리의 갈고 닦은 학습성과를 발표해 즐거움을 시민과 함께 나누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김생기 시장은 "평생학습축제는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결과물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직접 체험하며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축제의 한마당 자리"라며, "평생학습축제가 열리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학습에 정진해 아름다운 결실을 이룬 참여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정읍=김태환 기자